오늘의 게시판

멸종위기 박쥐의 보전·관리 학술세미나 김대중컨벤션센터

〈25일〉

행사

▲기아자동차 공동구입 협약식=오후 2시 기아차 광주공장 회의실.

▲멸종위기 박쥐의 보전·관리 국제 학술세미나=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08호실.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최병진 박사·국립공원관리공단 한상훈 박사 등 5명이 주제 발표.

▲행정자치부 지정 '팔방미인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체험 행사=오전 9시30분 무안군 현경면 수양 2리 석북마을. 목포 미향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180명 참가.

〈26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회=오전 7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박균철(한국인포서비스 고문)씨가 강사로 나서 '선택할 수 없을 때 선택하라'를 주제로 강연.

▲중소기업 대북진출 설명회=오후 2시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지역산업 육성정책 세미나=오후 4시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 및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정책 등을 주제로 실시.

▲춘계한국지리정보학회 워크숍=오후 4시 광주대 중앙도서관.

▲제 15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오전 9시30분 영암군 공설운동장.

▲제 11회 바다주간 행사=오후 2시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홀통 일대. 넙치(2만미) 방류 및 바다정화 활동.

▲조선대 치대 치과진료 봉사=오후 2시 담양군 용면초교.

공연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 2번'=25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제 28회 Duo Piano 정기연주회=25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월드피아노연주회=25일(목) 오후 1시 드맹아트홀.

▲목요열린국악한마당=25일(목)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김선영 초청 판소리 흥보가 공연.

▲가족사랑 자선 음악회=26일(금)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주부인형극단 인형극 정기공연=26일(금) 오전 10시10분 서구 향토문화센터 2층.

전시

▲한국국제아트페어전=26~31일 나인갤러리.

▲무등조형회전=26~6월8일 자미갤러리.

▲현대사진전 '앵글의 휴머니티'=26~6월25일 시립미술관 분관.

▲지산갤러리 기획프로젝트 '아이콘'전=6월7일까지 지산갤러리.

▲'아름다운 중심-사람들'손연자 작품전=29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한국의 양심수 오늘의 얼굴전=31일까지 롯데화랑. 김대중 전 대통령·백기완·고은·김지하·양성우씨 등 양심수 52명의 과거와 현재 사진 전시.

▲아동미술학회 단체전 '5월의 무지개 7가지 이야기'=31일까지 일곡갤러리.

▲강진 삼흥리 가마터 발굴 유물전=6월 3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강진 삼흥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100여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최제우, 동학 창시(1860)

▲소설가 이효석 세상 떠남(1942)

▲한국,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가입(1950)

▲주민등록 실시(1962)

뉴스퀴즈

13.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거리 유세를 벌이던 제1 야당의 박근혜 대표가 지난 20일 괴한에 피습,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정치 테러'라는 지적이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으며 5·31 지방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표가 속한 정당은 어디일까요?

① 열린우리당 ② 한나라당
③ 민주당 ④ 민주노동당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⑳ 가까워질수록 조심(Step-by-step mind)

가까워 질수록 언어·스킨십 조절해야

옛말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옛말에 담겨있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자.

남녀가 만나서 어느 정도 친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고, 그 다음은 초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일 것이다. 하지만 초반에 관계맺기가 잘 풀려 친해진 후에도 나중에 관계에 금이 가며 둘 사이가 파탄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러면 파탄을 최대한 피해가자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용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같다. 즉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남녀가 만나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서로 말도 편안하게 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속깊은 내용도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처럼 서로 친해지는 순간 사람은 방심하기 십상이다. 상대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엷어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장에서만 발언하기가 쉽다.

상대에 대해 친근감이나 신뢰감이 생기면 사람은 상대를 향해 말하는 양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만큼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에도 너무 자기 흥에 겨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자제력을 길러야 한다. 또 상대의 사생활이나 집안 내력 등을 꼬치꼬치 캐묻는 식의 언어사용은 삼가야 한다.

마치 수사기관에서 취조하는 식의 발언이 상대에 대한 관심표명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봤다. 그런 사람들치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잘못을 해 업을 쌓는 경우를 100으로 보면, 99는 구업이라고 한다. 즉, 99%는 입에서 또는 세 치 혀를 잘못 놀려서 화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친해질수록 입밖으로 나가는 언어의 내용이나 분량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른바 스킨십의 속도이다.

부적절한 타이밍에 잘못 시도하면 관계를 깨거나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아이템이다. 평소에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는 것이다.

학습 루트는 경험있는 선후배나 친구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과 연애관련 서적들을 뒤적이는 방법 정도가 좋은 것 같다.

훈련은 자기 스스로 본능을 억제하는 마인드 콘트롤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본능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표현이 있지 않은가. 옳은 얘기다. 남자들, 본능에 충실한답시고 너무 용감하게 대시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기 십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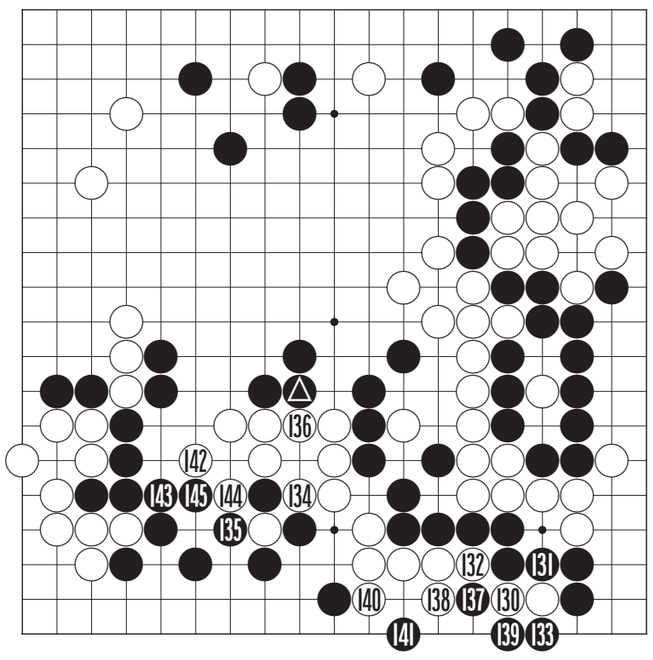
정리를 하면 첫째,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의 내용·분량에 넘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본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스킨십에 대한 힘조절이 요망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시라. 예전과는 다르게 기분좋게 사태가 전개됨을 목도할 수 있을 테니까.

대표컨설턴트 엄앵란 (1588-6665)

www.daksclub.com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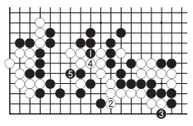
〈최강부 개인전〉

posco 광양제철소장배 바둑대회

대마 회생 결승전 제 9보(130~146)

白 김 복 현 (5단) 〈가야기우회〉

黑 김 춘 태 (5단) 〈순천기우회〉



〈참고도〉

흑 △가 백 대마의 몰락을 확인하는 일격이다. 공격하는 김춘태 5단이나 사경에 처한 김복현 5단 모두 이 대마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을 던지기에는 너무 큰 판이다. 김복현 5단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130과 132 등으로 돌을 움직여 가는데 방심한 김춘태 5단이 무심코 133으로 젖혀 버렸다.

이 수가 백 대마의 사활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말았다. 백이 134로 몰고 136으로 한 집을 만든 다음 흑이 137로 집을 없앨 때 142와 144로 패를 내는 수가 성립했다.

133으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중앙을 파호했으면 그만이었다. 백 2로 막더라도 3으로 젖혀 아래에서는 집이 나지 않는다.

살자는 팻감이 많아 백 대마가 겨우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그러나 형세는 여전히 흑의 우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이희성 6단, 천원전 8강 진출

이희성 6단이 지난 23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 16강전에서 안조영 9단을 123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이희성 6단은 8강전에서 고근태 5단 - 허영호 5단의 대국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현재 8강에 합류한 기사는 목진석 9단, 진동규 3단, 서건우 3단, 유재호 2단 등이다. 앞으로 남은 16강전의 하이라이트는 이세돌 9단과 조혜연 7단의 대국.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은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 초읽기 60초 5회가 주어지며 우승상금 2천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5일(음 4월 28일 甲寅)

子 36년생 형제 및 자식간에 小事 分爭이 발생할 수 있고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재가 나타날 수 있다. 48년생 희망의 소식은 들려온다. 60년생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72년생 숨은 돌리고 주변을 보라. 84년생 시기상조다. 행운의 숫자 : 01, 31

丑 37년생 낯선 곳에 온 것 같으니 불편하다. 49년생 앞으로 불편사가 예상되나 흉사는 없다. 61년생 지갑을 조심하라. 73년생 시기상조이나 숨통이 터진 기분. 85년생 옛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得財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43

寅 38년생 서로 다투며 나가니 좋을 수는 없다. 50년생 부친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62년생 주변 이웃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한다. 74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며 시비를 가리는 송사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인내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26

卯 39년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정리해야 하리라. 51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63년생 시기상조이니 충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75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6, 35

辰 40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점검 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고 만족하라. 76년생 희망의 설계가 조성되고 귀인이 도래한다. 행운의 숫자 : 02, 32

巳 41년생 適時에 마무리 작업으로 모든 외형을 줄이고 실리 있는 편으로 집중하라. 53년생 횡재는 바라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65년생 生氣가 발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77년생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3, 44

午 42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2인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54년생 속전속결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 66년생 가정이 안정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78년생 신중하게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0, 28

未 43년생 될 듯 될 듯한 구상만 있고 낭설이 많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5년생 중간인의 음모를 살펴보라. 67년생 집안이 뒤숭숭하니 침착성을 잃지 마라. 79년생 혹 남의 입에 오르내려도 관계치 말고 중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43

申 44년생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56년생 모든 외형을 실리위주로 바꿔라. 68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근친자간 동업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독신자는 외출을 해보라. 행운의 숫자 : 13, 40

酉 45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7년생 원한맺힌 미운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69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81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42

戌 46년생 큰 고통은 없다. 58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내용은 통한 듯하지만 이면에서 불씨가 움틀 수 있다. 82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우선 만족에 들뜨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20, 16

亥 47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 기쁘나 허망할 수도 있다. 59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치 말고 실리를 점검하라. 71년생 옛 인연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 83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잠깐의 길사가 있으나 후일을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4, 4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53>

I don't mean that

그런 뜻이 아니예요

A:In other words, you don't want to sell our products.
B:No, **I don't mean that.**
A:I don't think I understand what you're telling me.
B:OK. I will try to explain our circumstances all over again.

A:다시 말해서, 자네는 우리 회사 제품을 취급하고 싶지 않는다는 얘긴가?
B:아니, 그런 뜻이 아니네.
A:난 자네 말을 이해할 수 없어.
B:알았어. 다시 한번 우리 회사 상황을 설명해보지.

I don't think I understand what you're telling me.
= I don't agree with you.
sell = carry
I don't mean that. : 난 그런 뜻이 아닌데.
all over again : 다시 한번, 재차
=once again, once more, a second ti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53>

收(おさ)まります

괜찮아 집니다

A:あっ、また地震(じしん)ですよ。
B:いつものことだから、直(じき)に**收(おさ)まりますよ**。
A:でも神戸(こうべ)の地震を思(おも)い出(だ)すと、怖(こわ)くて鳥肌(とりはだ)が立(た)ちますよ。
B: 大丈夫(だいじょうぶ)、大丈夫。あんな大(おお)きなのは100年(ねん)に一度ぐらいでしょうから。

A: 앗, 또 지진입니다.
B:늘 있는 일이니까, 금방 괜찮아 집니다.
A:하지만 코오베지진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소름이 끼쳐요.
B:괜찮아, 괜찮다. 그런 큰 지진은 100년에 1번 정도니까.

地震(じしん) = 지진
收(おさ)まります = 괜찮아 집니다.
神戸(こうべ)の地震 = 코오베지진
鳥肌(とりはだ)が立(た)ちますよ = 소름이 끼쳐요
大丈夫(だいじょうぶ) = 괜찮아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71>

你吃饭了吗?

식사하셨어요?

A:你吃饭了吗?
B:还没吃呢! 食堂的饭不好吃, 所以去买方便面。
A:那不好, 我的…越去外语院吧。
B:那作罢吧, 宿舍的饭不好吃, 所以去买方便面。
A:식사하셨어요?
B:아직이요. 구내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서, 라면 사러 가려고요.
A:그럼 안 되죠. 우리 같이 밥해 먹기로 해요.

吃 [chī] 먹다, 식사하다
还 [hái] 아직, 여전히
食堂 [shítáng] 구내식당, 식당
方便面 [fāngbiànmiàn] 인스턴트 라면
不行 [bùxíng] 안 된다, 적절하지 않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271>

鼓 腹 (고 복)

두드릴 고, 배 복

늙은 농부가 배를 두드리며 발로 박자를 맞춰가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즉 고복격양(鼓腹擊壤)이야말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이미지이다.

고(鼓)는 주(𠂹 : 악기)+복(攴 : 치다)으로, 북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 복(腹)은 육(肉)+복(攴 : 덮다)으로, 내장을 덮어 감싸는 살을 의미한다.

중국의 고대사는 삼황오제(三皇五帝)라는 전설(傳說)에서 시작한다. 오제 중에서 요(堯)임금과 순(舜)임금 시대를 늘 이상적(理想的) 시대로 칭송한다. 특히 요임금의 어진 정치는 후대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루는 요임금이 평복을 하고 마을에 나가 어린 아이들이 다음처럼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은 / 그대의 지극함 아닌 것이 없다 /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 임금의 법에 따르고 있다" 또 마을을 벗어나자 늙은 농부가 다음 같은 노래를 불렀다. "해가 뜨면 일하고 / 해가 지면 쉬고 / 우물 파서 마시고 / 밭을 갈아 먹으니 /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랴" 농부는 배를 두드리고 땅을 차면서 기분이 좋은 듯했다. 이 광경을 본 요임금이 안심하고 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